광산구, 자전거 인프라 확충 녹색교통 활성화

단절구간 연결·생활형 자전거도로 신설
이달중 로드맵 가시화…자전거보험 운영

광주 광산구가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한다. 낡은 자전거 도로는 정비하고, 단절되거나 도로가 없는 곳은 신설해 어디서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친화도시'로 탈바꿈 하겠다는 포부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전용과 겸용을 포함해 총 93개 노선 235km다. 이는 광주 전체 자전거도로(661km)의 30%로, 영산강, 황룡강 등 주요 노선이 광산구를 경유하고 있다. 광산구의 자전거 인프라가 '광주 자전거 이용 환경'의 핵심인 셈이다.

광산구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전거 정책 수립과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달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광산구 자전거 시설 정비 방향과 연도별 계획, 시설 간 연계성 강화, 이용자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 전략 등 구체적인 밑그림이 제시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성덕교부터 하남교까지 수완지구 구간 풍영정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영산강, 황룡강 자전거길 단절 문제도 해소한다. 영산강, 황룡강 자전거도로는 사통팔달 광주의 '자전거 고속도로'로 통하는데, 광산구 풍영정천 합류부에서 덕흥대교(영산강 우안)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없어 차량이 다니는 제방도로를 지나야 하는 실정이다.

광산구는 해당 구간에 1.4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강변 자전거길 연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송정역 일대 도심과 강변 자전거길을 잇는 광주지하철 공항역~극락교 구간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설된다. 광주송정역 진출입로인 상무대로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총 32억원이 투입된다.

평동산단 생활형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도 본격화한다. 이곳은 이주노동자 등 산단 내 기업체를 다니는 노동자들의 자전거 출퇴근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광주 유일의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전용도로의 길이가 워낙 짧고, 다른 자전거도로와도 단절돼 있어 실질적인 기능은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광산구는 광주시와 협력을 통해 자전거 출퇴근 시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중심으로 시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해 4.16 km 연장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등 '생활형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관내 자전거 도로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노후했거나 파손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 보험을 실시한다. 등록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광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광산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광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건강과 환경을 모두 지키는 녹색교통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대표 자전거 라이딩 명소인 광산구 동곡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한 시민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오늘 더 사랑해孝"

광산구 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행사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광산구 노인복지관(더불어락, 행복나루 노인복지관)이 5월 첫째 주 경로효친 주간 기념행사를 갖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던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을 마음을 전하고, 일상회복을 축하하는 자리다.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孝(효)'를 슬로건으로 6일까지 카네이션 전달, 윷놀이 대회, 손 마시지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만화 그리기 체험 등 부스를 운영한다.

행복나루 노인복지관은 6일 '사랑과 존경을 그대 품 안에'라는 이름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카네이션 전달 및 세족식을 진행하고, 빛고을 문화예술단에서 트로트 밴드 공연도 연다.

광산구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 있던 어르신들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선물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며 "운영을 재개한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뒷받침하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어린이들아 모여라"

광산구, 공연·전시·체험 등 다채

광주 광산구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은 7일까지 '어린이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김성미 작가의 '돼지꿈' 그림책 아트프린팅 전시와 함께 '내 마음 알아요' 감정인형 만들기(6일) 등 어린이 대상 독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7일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놀기'를 주제로 한기철 작가 강연을 개최한다.

특히 이날에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광산구 거주 영유아(출생~60개월)를 대상으로 에코백, 안내 책자, 그림책 2권으로 구성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한다.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선 5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용감한 탄티' 공연을 개최한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광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예매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공원 이용도 지원한다. 광산구는 지역아동복지시설 83곳을 이용하는 아동 중 참여를 희망한 아동 1250명에게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제공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별로 자유롭게 놀이공원을 찾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드림스타트 아동 가족 56세대 104명을 대상으로 '봄맞이 놀이공원 나들이'를 선물한다. 광산구는 놀이공원 입장권 지원과 더불어 신체, 정서 활력 증진과 가족 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동물원 관람, 가족사진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60초 광고 영상 공모전'

패러디·감성광고 등 8월까지 접수

광주 광산구가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로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60초 광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며, 주제와 형식 제한이 없다. 경제, 복지, 관광, 역사, 문화, 먹거리 등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광산에 대한 흥미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패러디, 감성광고 등 순수 창작 영상물을 모집한다. 광산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0로 참여할 수 있다.

영상 분량은 40초 이상 90초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이메일(ysh578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광산구 누리집과 공식 SNS에 게시된 공모전 관련 안내 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다.

광산구는 독창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심사를 한 후 총 10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선 대상(1편) 300만 원, 최우수상(1편) 150만원, 우수상(1편) 100만원, 장려상(2편)각 50만원, 가작(5편) 각 1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최종 당선작은 9월 30일 광산구 누리집과 SNS를 통해 발표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도시의 밤, 별을 보다'

광산구 '별밤 미술관' 5~6월 전시…회복·교감 주제

광산구 '별밤 미술관'이 5~6월 일상 회복의 기쁨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명의 작가를 초대해 장소를 바꿔 이어가는 순회전 형태로 운영한다.

도시 속 긍정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이들의 삶을 표현한 김세진 작가의 전시 '도시의 밤, 별을 보다'는 5월 별밤미술관 in 선운(선운근린공원), 6월 별밤미술관 in 운남(운남근린공원)에서 열리고, 현대인의 일상에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정원'의 공간을 주제로 한 류신 작가의 'The Gardener's Time (정원사의 시간)' 전시는 5월 별밤미술관 in 수완(풍영정천변길공원), 6월 별밤미술관 in 신창(신창역사근린공원)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5월 별밤 미술관 in 운남에서 열리는 박형오 작가의 '회복하는 시간' 전시는 6월에는 수완에서 만날 수 있다. 결핍을 안고 있는 기억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발견하고 이를 표현한 조각 작품이다.

작가의 꿈을 마음껏 펼쳐내는 작품 중 '봄'을 주제로 한 우제길 작가의 '봄과 함께' 전시는 5월 별밤미술관 in 첨단(쌍암공원)에서 선을 보인 뒤 6월에는 선운근린공원의 별밤미술관에서 전시를 이어간다.

또 최정희 작가의 '교감' 전시는 5월 신창역사근린공원, 6월 쌍암공원 별밤미술관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빛과 교감하는 풀잎들의 다양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서양화 작품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별밤미술관 전시는 무료이며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소촌아트팩토리(062-960-3688)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